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권 1호 (2018년 3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목 차

만 4-5세 아동의 문장 처리 능력에서 순행 통제의 역할 탐색	이유진 · 최영은
아동의 귀납 추론과 범주화의 발달: 심리적 본질주의 관점에서	박해경 · 김근영
긍정적 정서에 대한 주의편향이 노인의 연합기억에 미치는 효과	연보라 · 김소연
다문화 아동의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민족정체성과 내재화된 낙인의 조절된 매개효과	설경옥 · 황다솔 · 심진화
형제가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설경옥 · 김유나
부부관계 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단기종단연구	강수경 · 최혜정 · 정미라
중년의 죽음태도와 행복: 물질주의와 의미추구성향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진 · 정영숙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마음이론 간의 관계: 어머니의 자율성 및 체계화 지지의 매개 역할	성지현
보드 게임 활용을 통한 훈련이 실행 기능과 언어 처리 능력에 미치는 효과 탐색	이유진 · 최영은

발행처 : 한국발달심리학회
발행인 : 이경숙(한신대학교 재활심리학과)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93 진빌딩 2층
전 화 : 02-336-6672

인쇄일 : 2018년 3월 15일
발행일 : 2018년 3월 15일
제작처 : 책과공간
(02-725-9371)

편집위원장 : 송현주(연세대학교)

편집위원 : 권미경(U.C Davis)	김은영(순천향대학교)	김혜리(충북대학교)	노수림(충남대학교)
박영신(경북대학교)	이현진(영남대학교)	정윤경(가톨릭대학교)	최유정(Harvard University)
심사위원 : 권미경(울산과학기술원)	김근영(서강대학교)	김민희(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김소연(덕성여자대학교)
김연수(전주대학교)	김윤정(한서대학교)	김은영(순천향대학교)	김정미(한국RT센터)
노경란(송파아이존)	노수림(충남대학교)	맹세호(가톨릭대학교)	문혁준(가톨릭대학교)
박영신(경북대학교)	박인조(고려대학교)	박창호(전북대학교)	서경현(삼육대학교)
설경옥(이화여자대학교)	성지현(성균관대학교)	송하나(성균관대학교)	송현주(연세대학교)
신나나(이화여자대학교)	신유림(가톨릭대학교)	양재원(가톨릭대학교)	옥 정(서울사이버대학교)
유 경(고려사이버대학교)	유연옥(계명대학교)	유연재(아주대학교)	윤선아(국제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윤혜경(좋은강안병원)	윤 황(가톨릭대학교)	이미선(동양대학교)	이수진(경성대학교)
이승연(이화여자대학교)	이현진(영남대학교)	장유경(한술교육문화연구원)	장혜인(성균관대학교)
정윤경(가톨릭대학교)	진경선(성신여자대학교)	최영은(중앙대학교)	최유정(Harvard University)
최은실(가톨릭대학교)	최해연(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한소원(서울대학교)	현명호(중앙대학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한국발달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발달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평을 게재한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하며, 한국심리학회에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독이 가능하다. 비회원의 구독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 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란다.

Vol. 31, No. 1

March 15, 2018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published quarterly-annually
b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annually and carries research articles based on empirical data & theoretical review. Subscription inquiries and manuscript submission should be directed to: Edito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Editor : Hyun-Joo Song(Yonsei University)

Associate Editor : Mee-Kyoung Kwon(U.C Davis)

Hei-Rhee Ghim(Chungbuk National University)

Young-Shin Park(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Yoon-Kyoung Jeong(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un-Young Kim(Soonchunhyang University)

Soo-Rim Noh(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yeon-Jin Lee(Yeungnam University)

You-Jung Choi(Harvard University)

한국심리학회지

발 달

제 31 권 제 1 호 / 2018. 3.

만 4.5세 아동의 문장 처리 능력에서 순행 통제의 역할 탐색	이유진 · 최영은 / 1
아동의 귀납 추론과 범주화의 발달: 심리적 본질주의 관점에서	박혜경 · 김근영 / 25
긍정적 정서에 대한 주의편향이 노인의 연합기억에 미치는 효과	연보라 · 김소연 / 51
다문화 아동의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민족정체성과 내재화된 낙인의 조절된 매개효과	설경옥 · 황다슬 · 심진화 / 71
형제가 지각한 부모의 차별적 양육행동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설경옥 · 김유나 / 91
부부관계 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단기종단연구	강수경 · 최혜정 · 정미라 / 111
중년의 죽음태도와 행복: 물질주의와 의미추구성향의 매개효과 검증	이화진 · 정영숙 / 129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마음이론 간의 관계: 어머니의 자율성 및 체계화 지지의 매개 역할	성지현 / 151
보드 게임 활용을 통한 훈련이 실행 기능과 언어 처리 능력에 미치는 효과 탐색	이유진 · 최영은 / 173

한국발달심리학회

다문화 아동의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민족정체성과 내재화된 낙인의 조절된 매개효과*

설 경 옥^{1)†}

황 다 솔¹⁾

심 진 화²⁾

¹⁾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²⁾서울수서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교육청

본 연구는 국내 다문화 아동이 지각한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와 이를 설명하는 심리적 기제를 밝히기 위해 실시되었다. 서울, 경기도 및 대구 소재 16개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6학년 131명(남 59명, 여 69명)의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SPSS Macro를 사용하여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내재화된 낙인과 민족정체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아동이 보고한 차별경험은 자존감을 유의하게 부적으로 예측하였고, 이는 다문화 아동이 학교, 지역사회, 친구들로부터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아동의 자존감이 낮게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이때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자신에 대한 부정적 도식으로 내재화하는 내재화된 낙인이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이 속한 민족에 대해 갖는 긍정적 태도인 민족정체성은 차별경험과 내재화된 낙인의 정적 관계를 조절하였다. 즉, 다문화 아동이 차별경험을 빈번하게 지각하더라도 민족정체성이 높다면 내재화된 낙인을 덜 하게 되고 따라서 자존감에 갖는 부적 영향력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아정체성 형성이 시작되는 후기 아동기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차별이 이들의 자존감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함과 동시에 다문화 아동이 자신들을 향한 사회의 부정적 평가를 스스로 내재화 하는 것이 자존감 하락에 중요한 설명요인이며 자신이 속한 민족에 긍정적 태도를 갖는 민족정체성은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힌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차별경험, 자존감, 내재화된 낙인, 민족정체성, 다문화 아동

* 이 논문은 심진화의 석사학위논문을 자료로 재분석하여 제작성한 것임.

† 교신저자 : 설경옥,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Tel: 02-3277-3918, E-mail: koseol@ewha.ac.kr

국내에 유입되는 귀화자 및 결혼이민자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다문화 아동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고(여성가족부, 2016) 전체 초등학생의 약 3%가 다문화 아동이다(교육부, 2016). 한국인과 국제 결혼한 가정이나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 하며 이들의 자녀를 다문화 아동이라 한다(최경옥, 2012). 최근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70% 이상이 미취학 혹은 학령기 아동이다(여성가족부, 2016). 그러나 국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예: 구향숙, 2013; 박미숙, 이미정, 2014)이나 다문화가정 어머니(예: 정옥희, 2013; 이선애, 최현정, 2016) 대상의 연구가 대부분이고 학령기 다문화 아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학령기 다문화 아동 대상 연구 역시 부모의 양육태도(예: 남상아, 백지숙, 2011), 부모와의 관계만족도(예: 최효식, 2017), 어머니의 언어능력(예: 박명숙, 2010)과 같은 부모요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기로 전환하는 학령기 아동은 신체, 인지,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가족 관계에서 보다 확장된 사회적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며, 자아 정체성과 가치감이 발달한다(Eccles, 1999). 편견과 차별은 다문화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환경 변인으로(오인수, 2014) 학령기 다문화 아동이 경험하는 차별이 이들의 자아 정체성 및 가치감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령기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한 차별과 자존감의 관계를 밝히고, 더 나아가 이 관계를 설명할 심리적 기제로 내재화된 낙인과 민족정체성과 역할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차별경험과 자존감

자존감은 자아정체성의 정서적 영역으로 나를 둘러싼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평가 및 인식이다(Hewitt, 2009). 자존감은 유아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이 시작되고 초기 아동기에 부모는 물론 또래, 교사의 영향을 받아 계속 발달되어 후기 아동기 혹은 초기 청소년기에 이르러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자존감이 형성된다(Damon & Hart, 1982). 일반적으로 아동의 자존감에는 학업, 성적, 외모, 사회적 지지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 다문화 아동의 자존감은 이에 더해 차별이라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김순규, 2012). 실제로 사회적 차별이라는 위협요인을 안고 있는 다문화 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과 비교하여 자존감이 더 낮았다(김아영, 김수인, 2011). 국내에서 다문화 아동의 차별경험과 자존감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 없으나 교사 보고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차별을 경험한 다문화 아동은 중학생이 된 이후에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이는 아동기 차별경험의 부정적 영향력이 청소년기까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일 민족임이 가치있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역사라고 여겼던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차별의 대상이 되어왔다(이경수, 마강래, 2016). 차별이란 개인이 속한 집단의 특성 혹은 정체성으로 인해 행해지는 부당한 대우로써(Krieger, 2014), 차별경험은 성인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예측하는 매우 주요한 변인이다(김수

진, 홍창희, 2017; 김혜미, 원서진, 최선화, 2011). 차별은 그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으나 대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더 빈번히 일어난다. 다문화 아동, 청소년들은 학교 안과 밖에서 빈번히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김석준, 2015) 학령기 아동의 차별경험에 대한 연구는 학교장면에서 집단 괴롭힘 혹은 따돌림에 대해 다룬 연구(김아영, 김수인, 2011)로 한정되었고, 학교 안이나 밖에서 다문화 아동이 경험하는 차별과 이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

후기 아동기에 경험하는 차별은 이시기의 주요한 발달과업인 자존감 발달에 위협요일 될 것이라 예상된다. 긍정적인 자존감은 아동기뿐 아니라 이후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의 심리적 안녕감과 정신건강을 예측하는(Orth, Robins, & Widaman, 2012) 주요한 심리적 자산이다. 아직 국내 다문화 아동의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없으나 다문화 아동이 경험하는 차별은 내재화 문제(김혜미, 원서진, 최선화, 2011) 그리고 외현화 문제(김수진, 홍창희, 2017)와 모두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연구에서는 소수민족 아동, 청소년의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가 일관적으로 부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면, 미국 내 라틴계 청소년의 차별경험은 자존감을 부적으로 예측했고(Umaña-Taylor & Updegraff, 2007), 네덜란드 내 10-13세의 소수민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개인의 민족성과 관련한 부당한 대우는 민족과 관련한 자존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기 가치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Verkuyten & Thijs, 2006). 캐나다에 거주하는 11-13세의 중국, 홍콩, 필리핀계 아동이 교사와 또래 친구들로부터 경

험한 차별 역시 자존감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Oxman-Martinez et al., 2012). 이와 같이 다양한 국가에서 소수민족 아동이 겪는 차별이 아동의 자존감에 부정적이라는 일관적인 결과는 국내 다문화 아동의 차별경험 역시 이들의 자존감에 부정적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매개: 내재화된 낙인

자존감은 자신과 관련된 사회적 정보를 개인이 기대하는 자신의 정체성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공고화하는 자기 확증(self-verification) 과정을 통해 발달한다(Cast & Burke, 2002).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한 사회적 자극과 정보를 받았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개념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증하는 방향으로 자극과 정보를 선별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정서적 자기개념인 자존감을 형성한다. 다문화 아동의 경우 차별이라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자극과 정보를 받았을 때 자기 확증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을 향한 부정적인 평가를 스스로 내재화하여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스스로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고 내재화 하는 것을 내재화된 낙인이라 일컫는다. 낙인(stigma)이란 소수집단이 가진 속성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내리는 것으로(이지수, 2011) 타인에 의해 부여된 부정적 가치가 존재함을 인지하는 지각된 낙인(perceived stigma)과 타인에 의해 부여되는 부정적 가치를 자신에 대한 평가로 내재화하는 내재화된 낙인(internalized stigma)으로 구분된다(Corrigan, 2004). 지각된 낙인도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이지만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부정적 평가, 편견에 동의하고 이를 자신에 대한 평가로 수용하는 내재화된 낙인은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 안녕에 더욱 부정적이다(Fife & Wright, 2000). 따라서 내재화된 낙인은 다문화 아동의 차별경험이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있어 매개 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국외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차별경험은 일관적으로 지각된 낙인은 물론 내재화된 낙인을 예측했으며(Brown, 2017; Quinn, Williams, & Weisz, 2015) 이러한 낙인은 자존감을 부적으로 예측했다(Gershon, Tschann, & Jemerin, 1999; Myers & Rosen, 1999).

국내에 아직 차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낙인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지만 국내 연구에서도 지각된 낙인과 내재화된 낙인은 모두 자존감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국내의 차별과 낙인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대부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들이 경험한 차별은 내재화된 낙인을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내재화된 낙인은 삶의 만족도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이지수, 2011). 척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각된 낙인은 내재화된 낙인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수치심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남연희, 김영삼, 한승길, 김강수, 2014). 그 밖에 지체장애 청소년(이인옥, 2007)과 시설보호 청소년(김진숙, 신혜숙, 문현주, 2014)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지각된 낙인은 자존감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대학생의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 도움추구 태도에 대한 지각된 낙인과 내재화된 낙인 모두 집단 자존감 및 개인 자존감을 유의하게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정진철, 양난미, 2010).

민족정체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다문화 아동이 차별을 경험하더라도 민족정체성은 사회적인 부정적 평가와 낙인을 스스로 내재화 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Ponterotto & Park-Taylor, 2007). 민족정체성은 개인이 어떠한 특정 민족 집단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집단에 갖는 소속감,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것에 대한 인지적 이해, 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 민족 집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친밀감과 관련 행사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같이 개인의 정서, 인지, 행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측면으로 정의된다(Phinney & Chavira, 1992). 민족정체성은 민족, 인종적으로 소수자들의 심리적 기능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변인이다(Phinney, 1990). 민족정체성은 자존감과 유사하게 4-5세 유아기에 발달이 시작되어 아동기에 급격하게 발달한다(Phinney, 1989). 아직 국내에는 다문화 아동은 물론 다문화 청소년이나 성인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없다. 하지만 일찍부터 이민자들이 국가 구성원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북미에서는 소수민족의 민족정체성이 성인은 물론 아동 청소년들이 경험한 차별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임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Galliher, Jones, & Dahl, 2011). 중국계 미국인 6학년 아동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민족정체성은 자존감과는 정적 그리고 우울증과는 부적 관계가 있었다. 이때 민족정체성은 차별경험과 우울증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ivas-Drake, Hughes, & Way, 2008). 아프리카계 미국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의하면 민족정체성

이 낮은 청소년들은 인종 차별을 경험할수록 폭력적 행동이 증가하였으나, 민족정체성이 높은 청소년들에서는 인종 차별경험과 폭력적 행동은 상관이 없었다(Caldwell, Kohn-Wood, Schmeelk-Cone, Chavous, & Zimmerman, 2004). 미국의 히스패닉계 8-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민족정체성이 낮은 아동은 교사로부터 차별을 경험했을 때 학업적 성취도가 낮게 나타난 것에 비해 민족정체성이 높은 아동에게서는 교사의 차별과 학업성취의 부적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Brown & Chu, 2012).

연구가설 및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의 자기 확증(Cast & Burke, 2002) 이론과 선행 연구에 따라 다문화 아동의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내재화된 낙인이 매개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아동이 차별을 경험할 때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는 사회적 자극을 자신에 대한 평가로 수용하고 내재화 할 때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낮은 자존감을 보일 것이라 예상된다. 이때 개인이 자신이 속한 민족에 대해 갖는 긍정적 태도인 민족 정체성(Phinney, 1990)은 다문화 아동이 차별을 경험할 때 아동의 심리내적 기제인 내

재화된 낙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수준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문화 아동이 지각한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내재화된 낙인과 민족정체성의 조절된 매개모형의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절차 및 대상

본 연구는 비교적 다수의 다문화 아동이 재학하는 서울의 10개교, 경기도 2개교, 대구 1개교의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초등학교 4-6학년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총 131명의 아동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아동의 평균 연령은 11.92세($SD=.88$)이었고 여아 69명(52.7%), 남아 59명(45.0%), 무응답 3명(2.3%)이었다. 아동의 학년은 4학년 55명(42.0%), 5학년 38명(29.0%), 6학년 37명(28.2%), 무응답 1명(0.8%)이었다. 아동의 출생국가는 한국 79명(60.3%), 중국 42명(32.1%), 베트남 2명(1.5%), 필리핀 1명(0.8%), 러시아 2명(1.5%), 기타 5명(3.8%)으로 보고하였다. 부모의 출생국이 한국이 아닌 경우에 대해 모 55명(42%), 부 11명(8.4%), 부모 모두 56명(42.7%) 기타 9명(6.9%)으로 응답하였다. 부모의 출신국은 대부분이 중국 97명(74.0%)이었고, 베트남 7명(5.3%), 필리핀 6명(4.6%), 태국 4명(3.1%), 미국 4명(3.1%), 기타 4명(3.1%), 일본 3명(2.3%), 몽골 3명(2.3%), 우즈베키스탄 2명(1.5%), 러시아 1명(0.8%) 순으로 보고했다. 아동의 대부분(96명, 73.3%)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한 부모와 사는 경우 21명(16%), 조부모와 사는 경우 6명(4.6%) 그리고 기타 8명(6.1%)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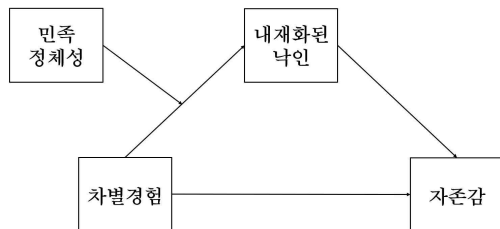


그림 1. 차별경험과 자존감에 관한 조절된 매개 연구모형

보고했다. 아동 자신의 한국어 실력에 대해 말하기, 읽기, 쓰기 세 문항을 5점 리커트식 척도(1=매우 서툴다, 5=매우 잘한다)로 질문하였을 때, 말하기 능력은 평균 4.35($SD=0.95$) 점, 읽기 능력은 평균 4.29($SD=1.03$)점, 쓰기 능력은 평균 4.24점($SD=1.14$)으로 평균적으로 잘한다 이상으로 지각하고 하고 있었다. 아동의 한국 거주기간은 평균 8.26년($SD=4.29$)으로 아동의 나이가 11-13세임을 고려하면 아동 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은 한국에 거주한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

차별경험

차별경험은 일상생활의 차별경험을 묻는 Guyll, Matthews와 Bromberger(2001)가 사용한 척도를 김보미(2007)가 아동용에 맞게 수정,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10문항, 4점 리커트식 척도로 아동이 또래, 이웃,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 빈도를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주위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보다 예의 없게 행동한 적이 있다, 가게의 주인아저씨나 아줌마가 가게에서 나를 계속 감시(주시)한 적이 있다). 김보미(2007)의 국내 이주노동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9였다.

민족정체성

민족정체성 척도는 Phinney(1992)가 개발한 민족정체성 척도(The Multigroup of Ethnic Identity Measure: MEIM)를 아동이 응답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총 14 문항으로 자신이 속한 민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소속감 5문항(예: 나는 나의 민족 집단과 집단의 성취에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탐색과 이해 7문항(예: 내가 해당 민족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은 나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민족과 관련한 행동과 의식 2문항(예: 나는 나의 민족 집단의 특별한 음식, 음악, 관습과 같은 문화적 관례행사에 참여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식 척도(1=전혀 아니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원척도는 고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아동이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교사 2인이 내용을 검수하고, 본 연구의 가장 어린 연령인 초등학교 4학년 학생 8명을 대상으로 설문용 모의 실시하여 아동의 문항 이해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재 아동의 생활 행태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민족과 관련한 행동과 의식 두 문항(예: 나는 나의 민족 집단의 특별한 음식, 음악, 관습과 같은 문화적 관례행사에 참여 한다, 나는 나의 민족 집단이 다수인 조직에서나 사교 집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및 아동의 발달 수준과 대비하여 이해가 어려운 정체성과 관련한 이해 두 문항(예: 나의 민족적 배경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으며, 그것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나의 민족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이 내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을 설문에서 삭제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수정된 설문지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새로운 초등학교 4학년 5명에게 모의 실시를 하여 초등학교 생이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다문화 아동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MEIM의 원칙도에서는 민족정체성에 대한 설문에 답하기 전에 응답자가 스스로 자신이 속한 집단을 규정하도록 하고 그 집단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역시 다문화 아동에게 스스로 자신이 속한 집단을 규정하도록 하였는데, 아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객관식으로 제시하였다. “나는 [★] 입니다.” 라는 질문에 1)한국인, 2)중국인, 3)일본인, 4)베트남인, 5)필리핀인, 6)러시아인, 7)우즈베키스탄인, 8)기타 로 답하도록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자신을 한국인으로 응답한 아동은 75명(57.3%), 중국인 39명(29.8%), 일본인 3명(2.3%), 베트남인 5명(3.8%), 필리핀인 2명(1.5%), 러시아인 1명(0.8%), 우즈베키스탄인 1명(0.8%), 미국인 3명(2.3%), 기타 2명(1.6%)이었다. 이후 민족정체성에 대한 문항은 아동 스스로 규정한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태도에 대해 대담하도록 하였다. Phinney(1992)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고등학생을 표본으로 하였을 때 .81, 대학생으로 표본으로 하였을 때 .90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내재화된 낙인

내재화된 낙인 척도는 Ritsher와 Phelan(2004)이 개발하고 황태연, 이우경, 한은성, 권의정(2006)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정신질환의 내재화된 낙인 척도(Korean version of Internalized Stigma of Mental Illness Scale: K-ISMI)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9문항으로 고립감(예: 정신질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낀다) 7문항, 차별경험

(예: 정신질환 때문에 사람들이 날 차별한다) 6문항, 고정관념(예: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나는 열등하다) 6문항, 낙인극복(예: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5문항, 평가절하와 사회적 위축(예: 정신질환자인 나 자신이 실망스럽다)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식 척도(1=전혀 아니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K-ISMI 척도 문항에서 ‘정신질환’을 ‘내가 속한 나라’로 바꾸어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초등학교 교사 2인과 본 연구에 참여 하지 않은 초등학교 4학년 8명을 대상으로 문항의 적절성과 이해도를 검토 후 ‘난처해하지 않도록’과 같은 표현을 ‘난처할까봐’로 ‘어울리지 않고 부적절하게 느낀다’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으로 아동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평이하게 바꾸어 사용하였다. 또한 아동이 이해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와 아동에게 적절하지 않은 문항으로 판단된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와 ‘결혼하면 안 된다’ 세 문항은 최종 설문에서 삭제하였다. 낙인 극복 문항은 역채점하여 전체 점수를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내가 속한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내재화한 정도가 높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자존감

자존감 척도는 한국판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를 홍진주(2004)가 몽골 이주 노동자 자녀 연구를 위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이 느끼는 자기 가치, 존중, 자신감(예: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스스

로가 만족스럽다)에 대한 느낌을 측정하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식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있고, 부정적 자존감을 측정하는 5문항은 역채점하여 합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홍진주(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6으로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1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의 절차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를 내적 합치도(Cronbach's)를 통해 검증하고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의 관련성을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셋째, 내재화된 낙인이 차별경험과 자존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가 민족정체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은 Preacher, Rucker와 Hayes(2007)의 제

안에 따라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 순으로 모형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내재화된 낙인이 차별경험과 자존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Preacher & Hayes, 2004). 조절효과의 검증을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SPSS의 Macro를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와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차별경험은 내재화된 낙인($r=.42, p<.01$)과 정적 그리고 자존감($r=-.30, p<.01$)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아동이 차별을 자주 경험할수록 내재화된 낙인의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131$)

변인	1	2	3	4	5	6
1. 성별	-					
2. 연령	.07	-				
3. 차별경험	.16	-.19*	-			
4. 내재화된 낙인	.23*	-.00	.42**	-		
5. 자존감	-.10	.12	-.30**	-.43**	-	
6. 민족정체성	.04	-.08	.05	-.29**	.35**	-
평균(M)		11.92	1.45	1.42	3.08	3.18
표준편차(SD)		0.88	0.48	0.34	0.52	0.68

* $p<.05$, ** $p<.01$

수준이 높고,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내재화된 낙인은 자존감($r = -.43, p < .01$) 및 민족정체성($r = -.29, p < .01$)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내재화된 낙인 정도가 심할수록 아동은 자존감을 낮게 보고하고 자신이 속한 민족에 대한 긍정적 태도인 민족정체성 또한 낮게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민족정체성은 자존감($r = .35, p < .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민족정체성을 높게 보고할수록 자존감 역시 높게 보고한 것을 의미한다.

차별경험과 자존감 간의 관계에서 내재화된 낙인의 매개효과 검증

차별경험과 자존감 간의 관계에서 내재화된 낙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차별경험은 자존감을 유의하게 부적으로 예측하였고($\beta = -.30, p < .001$) 2단계에서 역시 차별경험이 내재화된 낙인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였다($\beta = .42, p < .001$). 3단계에서 차별경험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내재화된 낙인이 자존감을 유의하게 예측하고($\beta = -.39, p < .001$), 이때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beta = -.11, p > .05$)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내재화된 낙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SPSS Macro를 이용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재추출한 표본 수는 5,000개였고, 매개효과 계수는 $-.188$ 로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계수의 하한 값과 상한 값은 각각 $-.323, -.089$ 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내재화된 낙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Preacher & Hayes, 2004).

차별경험과 내재화된 낙인의 관계에서 민족정체성의 조절효과 검증

민족정체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평균중심화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차별경험과 민족정체성을 투입한 뒤, 2단계에서 차별경험과 민족정체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표 3에 제시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 차별경험과 민족정체성의 효과가 각각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차별경험이 높을수록($t = 5.35, p < .001$) 그리고 민족정체성이 낮을수록($t = -3.81, p < .001$) 내재화된 낙인이 더 높았다.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2단계에서 차별경험

표 2.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내재화된 낙인의 매개효과 분석

	1단계			2단계			3단계		
	종속변수: 자존감			종속변수: 내재화된 낙인			종속변수: 자존감		
	B(SE)	β	t	B(SE)	β	t	B(SE)	β	t
차별경험	-.32(.09)	-.30	-3.49***	.29(.06)	.42	5.05***	.12(.10)	-.11	-1.22
내재화된 낙인							-.62(.15)	-.39	-4.14***

** $p < .01$, *** $p < .001$

표 3. 차별경험과 내재화된 낙인의 관계에서 민족정체성의 조절효과 분석

	종속변수: 내재화된 낙인					
	비표준화 계수		β	t	R^2	ΔR^2
	B	SE				
1단계						
차별경험	.30	.06	.42	5.35***	.26	.26
민족정체성	-.15	.04	-.30	-3.81***		
2단계						
차별경험 × 민족정체성	-.24	.09	-.22	-2.75**	.30	.04

** $p < .01$, *** $p < .001$

과 민족정체성의 상호작용이 내재화된 낙인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t = -2.75, p < .01$), R^2 의 변화량이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Delta R^2 = .04, p < .01$). 이러한 결과는 차별경험과 내재화된 낙인의 관계를 민족정체성이 조절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차별경험이 잦을수록 내재화된 낙인이 증가하는데 민족정체성이 증가하면 이러한 영향은 점점 감소하는 완충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형권, 2016).

민족정체성의 조절효과가 어떤 값에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조절변수가 높을 때 (+1SD)와 낮을 때(-1SD) 차별경험과 내재화된 낙인의 관계에서의 단순회귀선의 유의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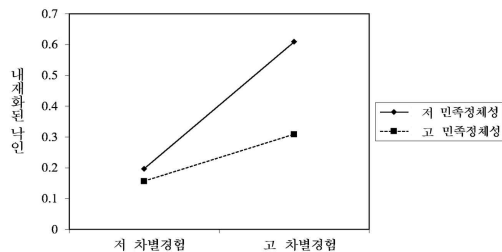


그림 2. 차별경험과 내재화된 낙인의 관계에서 민족정체성의 조절효과

을 사용하였다(Hayes & Matthes, 2009). 그 결과, 그림 2와 같이, 민족정체성이 높은 집단($t = 1.98, p < .05$)과 낮은 집단($t = 5.57, p < .001$) 모두에서 조절효과가 유의하였으나 민족정체성이 낮은 집단에서 차별경험이 빈번할수록 내재화된 낙인이 증가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이전 단계의 검증들을 통해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내재화된 낙인의 매개효과, 차별경험과 내재화된 낙인의 관계에서 민족정체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 두 가지 효과를 결합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SPSS Macro model 7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차별경험이 내재화된 낙인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했고($t = 6.21, p < .001$), 내재화된 낙인은 자존감을 유의하게 부적으로 예측했으며($t = -4.07, p < .001$), 차별경험과 민족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했다.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는

표 4.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결과

	종속변수: 내재화된 낙인			종속변수: 자존감		
	B	SE	t	B	SE	t
상수	-.00	.03	-.08	-.01	.04	-.18
차별경험	.33	.05	6.21***	-.12	.10	-1.20
민족정체성	-.17	.04	-4.57***			
차별경험× 민족정체성	-.25	.09	-2.96**			
내재화된 낙인				-.61	.15	-4.07***

* $p < .05$, ** $p < .01$, *** $p < .001$

.155($SE=.071$)로 나타났고, 95%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053-.339)은 0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차별경험은 내재화된 낙인을 매개로 자존감을 유의하게 예측했는데, 이러한 관계는 민족정체성의 수준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조절된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민족정체성의 수준에 따라 차별경험이 내재화된 낙인을 통해 자존감을 예측하는 매개(간접) 효과가 유의한지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래핑 재추출 수는 5,000번이었고, 신뢰구간은 95%였으며, 민족정체성의 $-1SD$ 수준과 평균에서는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으나 $+1SD$ 의 수준에서는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표 5). 구체적으로 민족정체성이 낮거나 평균인 집단에서는 내재화된 낙인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만 민족정체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내재화된 낙인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절된 매개효과와 결과는 차별을 많이 경험한 아동은 내재화된 낙인을 더 많이 하고, 높은 내재화된 낙인은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민족정체성이 낮거나 평균인 경우에만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5. 민족정체성 수준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

민족정체성	조절변수의 각 수준별 조건부 간접효과				
	Boot 간접효과	Boot 표준오차	Boot LLCI	Boot ULCI	
내재화된 낙인	$-1SD$	-.30	.09	-.51	-.17
	M	-.20	.05	-.32	-.11
	$+1SD$	-.09	.06	-.23	.01

주. Boot LLCI= Boot 간접효과와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 값, Boot ULCI= Boot 간접효과와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 값

논 의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은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관계적 교류를 통해 형성된다(신희건, 2015). 다문화 아동이 경험한 차별은 이들의 자존감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되나 아직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자기 확증이라는 심리내적 기제를 통해 자존감이 형성된다는 자존감 이론(Cast & Burke, 2002),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부적관계에 대한 국외선행 연구와 소수민족에게 민족정체성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Phinney, 1990)는 선행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문화 아동의 차별경험은 내재화된 낙인을 매개로 자존감을 부정적으로 예측하며, 이때 차별경험이 내재화된 낙인을 통해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민족정체성의 수준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조절된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지지되었고 결과에 대한 해석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아동의 차별경험은 낮은 자존감을 예측했고, 이 과정을 내재화된 낙인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국외 소수민족 아동, 청소년 연구에서는 차별경험이 이들의 낮은 자존감(Fisher, Wallace, & Fenton, 2000), 낮은 삶의 만족(Seaton, Caldwell, Sellers, & Jackson, 2008) 그리고 높은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를 모두 예측하였다(Berkel et al., 2010). 국내 다문화 아동과 일반아동의 차별경험과 자존감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일반아동에 비해 다문화 아동은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빈번히 경험하며, 자존감은 유의하게 더 낮았다(김아영, 김수인, 2011). 아직 국외에서도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내재화된 낙인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으나 북미의 흑인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흑인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내재화한 경우 자신의 피부색에 더 불만족해 하고 백인의 신체적 조건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고(Townsend, Thomas, Neilands, & Jackson, 2010) 이는 사회적 편견의 내재화가 부정적 자기 평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 신체장애인 대상 연구에 의하면 차별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부적 관계를 자기낙인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수, 2011). 국내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다룬 연구에서도 차별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부적 관계를 수치심이 완전매개하였다(남연희 외, 2014). 본 연구의 결과, 선행연구 그리고 자존감의 자기 확증 이론을 종합해 보면, 차별경험이 직접적으로 다문화 아동의 자존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 차별을 경험한 아동이 그러한 차별을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받아들이고 내재화 하는 과정을 통해 자존감 저하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아동의 민족정체성 수준에 따라 차별경험과 내재화된 낙인의 관계 정도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민족정체성이 높은 아동은 차별경험이 빈번하여도 내재화된 낙인 수준이 높지 않는데 비해 민족정체성이 낮은 아동은 차별경험이 증가할수록 내재화된 낙인 수준도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다문화가 비교적 생소한 사회적 개념으로 아직 학계에서도 민족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북미와 같이 일찍부터 이민자들로 구성된 국가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던 소수민족의 민족정체성의 보호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

으로 한 민족정체성과 학업성적에 대한 메타 분석에 의하면 민족정체성과 학업성취도는 작지만 정적인 효과크기($r=.087$)를 나타냈고 (Miller-Cotto & Byrnes, 2016), 북미 성인을 대상으로 한 민족정체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메타 분석에 역시 유의한 정적인 관계($r=.1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mith & Silva, 2011). 특히 심리적 안녕감 중에서 자존감($r=.21$)과 행복($r=.19$)의 효과크기가 우울($r=.06$), 불안($r=.10$)과 같은 정신건강문제보다 두 배 이상 더 컸는데, 이는 민족정체성이 자존감과 같은 긍정적 심리적 안녕감과 더 연관이 깊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주 가설인 차별경험이 내재화된 낙인을 통해 자존감으로 가는 매개효과가 민족정체성에 의해 조절되는 조절된 매개효과는 지지되었다. 다문화 아동이 차별을 경험할 때 이를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내재화하여 자기에 대한 가치감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차별경험의 빈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민족정체성이 높은 아동은 차별을 경험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민족에 소속감을 가지며,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이를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가치로 내재화를 덜 했고 결과적으로 자존감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민족정체성의 수준이 낮은 아동의 경우 차별경험이 빈번할수록 내재화된 낙인은 증가했고 이를 통해 자존감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rocker와 Major (1989)의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에 대한 리뷰논문에 의하면 낙인과 억압을 경험한 집단의 자존감이 항상 낮게 나오진 않았는데, 자신이 속한 민족에게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 민족정체성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민족정체성은 내재화된 낙인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Cotter,

Kelly, Mitchell, & Mazzeo, 2015) 외부로부터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을 때 민족정체성이 높은 개인은 그러한 대우를 나에 대한 평가로 내재화하기보다 내가 속하지 않은 “외집단”의 평가로 간주하며 그 중요성을 절하하여 자신의 자존감에 해가 되지 않게 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역시 자신이 속한 민족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소속감을 더 느끼는 아동이 차별경험을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덜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자존감을 보호하는 역할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학령기 다문화 아동의 자존감 발달에 있어 차별경험이 위험요인이 될 경우 국내에서는 처음 경험적으로 검증한 의의가 있다. 사회적 차별은 소수민족 아동의 발달에 치명적인 위험요인이다. 특히 후기 아동기는 사회관계망이 증가하고 인지발달이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자아정체성 발달이 본격화 되고 타인의 자기에 대한 평가에 보다 민감해 지는 시기이다(Damon & Hart, 1982). 자존감은 아동기는 물론 이후 전발달단계에서 적응과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자산이다(Sowislo & Orth, 2013). 다문화 아동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대부분 청소년이나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가 주 대상이었고, 연구 대상뿐 아니라 주제도 문화, 언어 적응 그리고 학교 적응으로 한정적이었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학령기 아동으로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연구 주제도 이 시기의 주요 발달과업인 자존감을 다룬 의의가 있다.

둘째, 국내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한 차별과 자존감의 부적 관계를 설명하는 기제를 밝힘으로써 다문화 아동의 자존감 발달에 있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함께 제시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빈번한 차별을

경험하는 다문화 아동의 자존감 발달에 있어 내재화된 낙인은 위험요인으로 민족정체성은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 아동뿐 아니라 성적 소수자, 여성, 노인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연구로 확산을 가능하게 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소수자들이 흔히 경험하는 차별, 낙인, 억압이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기제로 내재화된 낙인과 정체성의 역할을 연구하였다.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들의 관점에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이나 사회의 편견을 인지하는 지각된 낙인보다 그러한 편견을 자신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는 내재화된 낙인이 개인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자존감에 훨씬 더 부정적이라는 국외의 선행 연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소수자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긍정적이고 명확한 정체성을 갖는 것이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심리 상담 및 교육에 대한 함의는 첫째, 차별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내재화된 낙인의 매개효과는 잦은 차별경험으로 인해 자존감이 손상을 입는 경로에서 아동이 외부의 부정적 정보를 인식하고 이에 동의하며 이를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는 내재화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상담자나 교사는 차별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다문화 아동이 경험한 차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스스로도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내재화된 낙인의 과정을 탐색하고 이를 수정하는 개입을 실시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민족정체성이 낮을수

록 내재화된 낙인을 매개로 차별경험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의 상담에 있어 스스로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민족 집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개입한다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한 부정적 태도를 경험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강점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 아동뿐 아니라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신체장애인, 정신 질환자, 탈북자, 비행 청소년, 성 소수자 등의 내담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상담이나 학교장면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개입에 있어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이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재화 하는 과정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탐색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의 다문화 가정 아동이 밀집한 지역에서 표집을 하였다. 131명의 다문화 아동이 모집되어 연구가설의 검증은 가능하였으나 다문화 가정의 민족 구성과 이민 세대의 상태를 검증할 만큼의 표본의 수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화 아동이 속한 민족 집단의 구성과 이민 세대의 상태, 거주 지역 등 다문화 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표본을 구성한 연구가 진행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아동의 차별경험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내재화된 낙인의 매개효과와 민족정체성의 완충효과를 검증하였

다. 본 연구의 대상이 속한 후기 아동기는 자아정체성 발달이 본격화되는 시기로써 민족정체성에 대한 탐색은 시작 했지만, 아직 민족정체성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아동이 있을 수 있다(Phinney & Ong, 2007). 따라서 국내 다문화 아동의 민족정체성 발달의 과정 및 개인차에 대한 중단 추적 연구를 통해 차별경험과 민족정체성 그리고 내재화된 낙인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민족정체성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민족 집단을 정의하고 정서, 인지, 행동적 측면에서 자신이 속한 민족에 대한 태도로 정의되어지고 측정 역시 이러한 절차로 이루어진다(Phinney, 1992).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자신이 속한 집단을 객관식으로 정의하게 하였다. 그 결과 아동은 ‘한국인’, ‘중국인’과 같은 보기중 하나를 골라야만 했지만, ‘중국제 한국인’등과 같은 답을 하고 싶었던 아동이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의 민족정체성 발달의 한 측면으로서 자신이 속한 민족 집단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구조화된 면접법등을 통해 연구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부 (2016). 2016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유·초·중등 교육통계편.

구향숙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5, 83-112.

김보미 (2007). 외국인 이주 노동자 자녀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 스트레스,

차별 경험,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석준 (2015).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특성이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亞細亞研究, 58(3), 6-41.

김수진, 홍창희 (2017). 다문화가정 자녀의 차별경험과 언어문제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1), 195-211.

김순규 (2012).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9(6), 109-128.

김이영, 김수인 (2011). 여성국제결혼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관련 심리적 특성 비교. 교육심리연구, 25(4), 853-873.

김진숙, 신혜숙, 문현주 (2014). 시설보호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사회적 낙인, 내면화된 수치심이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조절변수 용서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2(3), 63-74.

김혜미, 원서진, 최선화 (2011).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차별경험과 심리적 적응: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1), 117-149.

남상아, 백지숙 (2011). 다문화 가정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9(1), 3-12.

남연희, 김영삼, 한승길, 김강수 (2014). 척수장애인의 낙인과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18(1), 81-112.

박명숙 (2010).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

- 으로. *保健社會研究*, 30(2), 193-218.
- 박미숙, 이미정 (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갈등원인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0(3), 149-174.
- 신희건 (2015). 학령기 후기 아동의 삶의 질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1), 485-499.
- 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6).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
- 오인수 (2014).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괴롭힘 피해 경험과 심리 문제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5(4), 219-238.
- 이경수, 마강래 (2016). 이민자 차별 경험의 세대간 대물림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결혼 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세미나 논문집*, 3, 299-313.
- 이선애, 최현정 (2016).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연구. *열린 유아교육연구*, 21(2), 133-155.
- 이인옥 (2007). 지체장애인의 지각된 낙인과 자아존중감. *근관절건강학회지*, 14(1), 52-60.
- 이지수 (2011). 차별경험과 자기 낙인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社會科學研究*, 27(1), 277-299.
- 이형권 (2016). 조절분석과 조절된 매개분석 및 매개된 조절분석의 오해와 진실. *觀光研究*, 31(3), 213-248.
- 정옥희 (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스트레스가 자녀의 학교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임상사회사업연구*, 10(2), 23-37.
- 정진철, 양난미 (2010). 낙인과 자존감,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31-652.
- 최경옥 (2012).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권. *公法學研究*, 13(1), 307-339.
- 최효식 (2017). 다문화 가정 자녀의 부모와의 관계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학교급, 성별, 사회적 차별 경험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 195-217.
- 홍진주 (2004).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태연, 이우경, 한은선, 권의정 (2006). 한국판 정신질환의 내재화된 낙인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神經精神醫學*, 45(5), 418-426.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s, London: Sage Publication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rkel C., Knight, G. P., Zeiders, K. H., Tein, J. Y., Roosa, M. W., Gonzales, N. A., & Saenz, D. (2010). Discrimination and adjustment for Mexican American adolescents: A prospective examination of the benefits of culturally-related valu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0(4), 893-915.
- Brown, C. S., & Chu, H. (2012). Discrimination, ethnic identity, and academic outcomes of

- mexican immigrant children: The importance of school context. *Child Development*, 83(5), 1477-1485.
- Brown, R. L. (2017). Functional limitation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Considering perceived stigma and discrimination within a stress and coping framework. *Stigma and Health*, 2(2), 98-109.
- Caldwell, C. H., Kohn-Wood, L. P., Schmeelk-Cone, K. H., Chavous, T. M., & Zimmerman, M. A. (2004). Racial discrimination and racial identity as risk or protective factors for violent behaviors in African American young adul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3(1-2), 91-105.
- Cast, A. D., & Burke, P. J. (2002). A theory of self-esteem. *Social Forces*, 80(3), 1041-1068.
- Corrigan, P. W. (2004). How stigma interferes with mental health care. *American Psychologist*, 59(7), 614-625.
- Cotter, E. W., Kelly, N. R., Mitchell, K. S., & Mazzeo, S. E. (2015). An investigation of body appreciation, ethnic identity and eating disorder symptoms in Black women. *Journal of Black Psychology*, 41(1), 3-25.
- Crocker, J., & Major, B. (1989).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The self-protective properties of stigma. *Psychological Review*, 96(4), 608-630.
- Damon, W., & Hart, D. (1982). The development of self-understanding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4), 841-864.
- Eccles, J. S. (1999). The development of children ages 6 to 14. *The Future of Children*, 9(2), 30-44.
- Fife, B. L., & Wright, E. R. (2000). The dimensionality of stigma: A comparison of its impact on the self of persons with HIV/AIDS and cancer.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1(1), 50-67.
- Fisher, C. B., Wallace, S. A., & Fenton, R. E. (2000). Discrimination distres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6), 679-695.
- Gallagher, R. V., Jones, M. D., & Dahl, A. (2011). Concurrent and longitudinal effects of ethnic identity and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on psychosocial adjustment of Navajo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47(2), 509-526.
- Gershon, T. D., Tschann, J. M., & Jemerin, J. M. (1999). Stigmatization, self-esteem, and coping among the adolescent children of lesbian mother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4(6), 437-445.
- Guyl, M., Matthews, K. A., & Bromberger J. T. (2001). Discrimination and unfair treatment: Relationship to cardiovascular reactivity among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women. *Health Psychology*, 20(5), 315-325.
- Hayes, A. F., & Matthes, J. (2009). Computational procedures for probing interactions in OLS and logistic regression: SPSS and SAS implementation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3), 924-936.
- Hewitt, J. P. (2009). The social construction of self-esteem.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Oxfor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217-22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rieger, N. (2014). Discrimination and health inequ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 44(4), 643-710.
- Miller-Cotto, D., & Byrnes, J. P. (2016). Ethnic/racial identity and academic achievement: A meta-analytic review. *Developmental Review, 41*, 51-70.
- Myers, A. & Rosen, J. C. (1999). Obesity stigmatization and coping: Relation to mental health symptoms, body image, and self-esteem.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and Related Metabolic Disorders, 23*(3), 221-230.
- Orth, U., Robins, R. W., & Widaman, K. F. (2012). Life-span development of self-esteem and its effects on important life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6), 1271-1288.
- Oxman-Martinez, J., Rummens, A. J., Moreau, J., Choi, Y. R., Beiser, M., Ogilvie, L., & Armstrong, R. (2012). Perceived ethnic discrimination and social exclusion: Newcomer immigrant children in Canada.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2*(3), 376-388.
- Phinney, J. S. (1989). Stages of ethnic identity development in minority group adolesc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9*(1-2), 34-49.
- Phinney, J. S. (1990).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08*(3), 499-514.
- Phinney, J. S. (1992). The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A new scale for use with diverse group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7*(2), 156-176.
- Phinney, J. S., & Chavira, V. (1992). Ethnic identity and self-esteem: An exploratory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15*(3), 271-281.
- Phinney, J. S., & Ong, A. D. (2007).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ethnic identity: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3), 271-281.
- Ponterotto, J. G., & Park-Taylor, J. (2007). Racial and ethnic identity theory, measurement, and research in counseling psychology: Pres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3), 282-294.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and Computers, 36*(4), 717-731.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Quinn, D. M., Williams, M. K., & Weisz, B. M. (2015). From discrimination to internalized mental illness stigma: The mediating roles of anticipated discrimination and anticipated stigma.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38*(2), 103-108.
- Ritsher, J. B., & Phelan, J. C. (2004). Internalized stigma predicts erosion of morale among psychiatric outpatients. *Psychiatry Research, 129*(3), 257-265.
- Rivas-Drake, D., Hughes, D., & Way N. (2008). A closer look at peer discrimination, ethnic ident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urban Chinese American sixth grade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1), 12-2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aton, E. K., Caldwell, C. H., Sellers, R. M., & Jackson, J. S. (2008). The prevalence of perceived discrimination among African American and Caribbean Black youth. *Developmental Psychology, 44*(5), 1288-1297.
- Smith, T. B., & Silva, L. (2011). Ethnic identity and personal well-being of people of color: A meta-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1), 42 - 60.
- Sowislo, J. F., & Orth, U. (2013). Does low self-esteem predict depression and anxiety?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39*(1), 213-240.
- Townsend, T. G., Thomas, A. J., Neilands, T. B., & Jackson, T. R. (2010). I'm no jezebel; I am young, gifted, and black: Identity, sexuality, and black girl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4*(3), 273-285.
- Umaña-Taylor, A. J., & Updegraff, K. A. (2007). Latino adolescents' mental health: Exploring the interrelations among discrimination, ethnic identity, cultural orientation, self-esteem, and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Adolescence, 30*(4), 549-567.
- Verkuyten, M., & Thijs, J. (2006). Ethnic discrimination and global self-worth in early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ethnic self-esteem.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0*(2), 107-116.
- 1차원고접수 : 2018. 01. 15.
수정원고접수 : 2018. 02. 26.
최종게재결정 : 2018. 03. 05.

Multicultural Children's Perceived Discrimination, Internalized Stigma and Self-Esteem: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Ethnic Identity

KyoungOk Seol

Dasol Hwang

Jinhwa Sim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a mediating effect of internalized stigma and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ethnic ident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self-esteem among multicultural children in Korea. A total sample of 131 4-6th grade children (59 boys and 69 girls) completed a survey. We found that multicultural children's perceived discrimination was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self-esteem. Internalized stigma mediated this association. This mediation effect of perceived discrimination on self-esteem through internalized stigma was moderated by ethnic identity. Specifically, the children who scored low on ethnic identity were more likely to internalize stigma against their race and ethnicity when they experienced more frequent discrimination. That, in turn, led to lower levels of self-esteem. We included the importance of exploring multicultural children's internalized stigma and ethnic identity in school and psychotherapy when they experienced unfair treatment and discrimination inside and outside of school.

Key words : *discrimination, self-esteem, internalized stigma, ethnic identity, multicultural children*